

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李鍾容
編輯人 張玉煥
印刷人 張玉煥
編輯局長 田根澤

發行所
社團 韓國生藥協會
社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지면안내

- ◎ 「기고」생약협회에 거는 기대와 바람 3면
- ◎ 주산단지순례(임실) 4면
- ◎ 약용연구기관을 찾아서 4면
- ◎ 진안속근약초시험장 4면
- ◎ 중금속 지형재배법 6면

생산능가 타격 우려

중금속 기준강화



◇ 한약재 중금속 기준 20PPM으로의 강화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식품기준 20 PPM 한약재에는 부적합

청정약재생산 재배과정서 관리돼야

최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한약재 중금속 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내 한약재 생산농가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는 한약재 및 생약재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현행 1 PPM에서 20 PPM으로 강화한다. 그러나, 농약의 유기염소계 농약인 DDP BNC는 0.2 PPM으로, 알드린은 0.1 PPM으로 정했다.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초, 계피, 갈근 등 한약재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20 PPM으로 강화하고, 농약잔류기준을 새로 마련 유기염소계 농약인 DDP BNC는 0.2 PPM으로, 알드린은 0.1 PPM으로 정했다. 그러나, 상

두충 황기 밀수품법

계속되는 불경기속에서 수입산 두충과 황기가 다량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한약업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충은 5~6천원, 황기는 3천~5천원 선에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 두충황기는 국내 생산량 만으로도 공급이 충분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수입조절물류이다. 불법으로 들어온 값싼 수입약재가 국산으로 둔갑돼 불경기속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이중의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내산 두충과 황기는 현재 9천원 선에 각각 거래되고 있는 중금속과 2배 이상인 가격차가 나는데다,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육안으로 쉽게 구분이 어렵다고 한다. 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입조절물류로서 반입을 결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많은 양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밀수업자에 의한 불법수입이나 식품원료로 가공한 합법물류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입조절물류에 한해서는 식품원료로서의 반입도 제한해야 할 것이 라고 피력했다.

한약재 단순배합

“약사법 위반 아니다”

한약재를 가공하지 않고 단순 배합해 한약재의 효능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약사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서울지법 형사 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0일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혐의로 20여가지의 한약재를 배합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45)을 유죄 판결(3년 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 고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우리생약살리기 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우리생약재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 혜택**
- 국산한약재 전시회, 건강강좌 등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 참여
 - 자생약초 및 재배약초 산지견학
 - 국산한약재 할인 (5%)
 - 한국생약보 제공

- 구비서류**
- 1) 가입서 양식 (본부 비치)
 - 2) 증명사진 2장
 - 3) 년회비 : 2만원
- 가입문의 : 협회 사무국 (02) 967-8133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우리생약 살리기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뿌리 뽑힌 삶이 행복할 수 없듯이
우선 농촌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생약살리기는
우리의 터전을 지키자는
농촌살리기 운동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회원일동